

보도시점 (전매체) 4. 25.(목) 10:00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주제로 제4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 소상공인이 디지털 기술을 경영에 도입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하는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 제시
- “민간기업-소상공인-정부 협업 모델” 구축 방안을 토종 온라인거래터(플랫폼) 기업(11번가),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한국신용데이터), 소상공인 등 관계자들과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25일 11번가 본사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촉진을 주제로 11번가 등 온라인거래터(플랫폼사) 대표, 온라인 판로 개척과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 등과 제4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 * (주요 참석자) 중기부 장관, 11번가 안정은 대표, 한국신용데이터 김동호 대표, 티몬 정해영 실장, 와디즈 최동철 부사장, 소상공인 대표,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 등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의 현장 소통 정책 표어(브랜드)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에서 출발하여 현문우답(현장의 문제, 우리가 답하다)의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민간기업-소상공인-정부로 이어지는 협업 모델 구축을 위한 정부와 온라인거래터(플랫폼)사의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중기부는 그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 성과를 점검한 뒤, ‘소상공인 누구나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협업하는 모델 구축’이라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중기부 발표에 이어, 국내 대표적인 토종 전자상거래 온라인거래터(e커머스 플랫폼)인 11번가 안정은 대표가 “온라인거래터(플랫폼) 기업의 소상공인 협업·상생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11번가는 앞으로 정부와 협업하여 국내 온라인 판로 뿐만 아니라 해외 판로까지 소상공인이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200만 소상공인 데이터를 보유중인 한국신용데이터 김동호 대표가 “소상공인 경영관리 데이터를 활용한 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소상공인 영업 활동에서 축적된 데이터 자산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문제를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협업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데이터 분야의 협업과 정책 활용은 그간 소상공인들이 단골 고객 확보와 효율적인 재고관리 등을 위해 현장에서 많이 요구한 사항이다.

오영주 장관은 “디지털 전환은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정부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급과 확산에 주력해 왔으나, 이제는 축적된 성과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전환이 실제 소상공인 성장과 경영 비용 절감에 도움되도록 민간과 함께 고도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하며,

“특히, 민간기업-소상공인-정부로 이어지는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 기업은 성장가능성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소상공인은 온라인을 통한 해외판로 개척, 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골고객 및 재고 관리 등 경영효율화를 이루어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 행사 사진은 11시 30분경 배포 예정입니다. 취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실 디지털소상공인과	책임자	과 장	김민지 (044-204-7870)
		담당자	서기관	김성오 (044-204-7873)
			사무관	이상우 (044-204-7282)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고 1**제4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계획**

□ 주제 : 민간과 협업을 통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촉진

- 그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은 정부 중심 → 소상공인 누구나 디지털 전환이 손쉽게 가능하도록 민간과 협업하는 모델 구축하고 현장 의견 수렴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4. 4. 25(목) 10:00, 11번가 본사 16층 교육장 (서울역 서울스퀘어)
- (참석자) 중기부 장관, 11번가 대표 등 플랫폼사 관계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스마트기술 도입 등), 유통센터 대표 등 15명 내외
- (논의내용) ①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정책현황 및 성과, ② 플랫폼사 협업·상생 방안 (11번가, 한국신용데이터), ③ 건의·애로사항 청취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05 (05')	• 인사말씀 (장관)	사회: 소상공인정책과장
10:05 ~ 10:20 (15')	• 안건 발표 (각 5분)	
	①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정책 현황 및 성과	디지털소상공인과
	② 플랫폼 기업의 소상공인 협업·상생 방안	11번가 안정은 대표
	③ 소상공인 경영관리 데이터를 활용한 협업방안	KCD 김동호 대표
10:20 ~ 11:25 (45')	• 건의·애로사항 청취 및 답변	참석 소상공인 등
11:25 ~ 11:30 (05')	• 마무리말씀 (장관)	

Q1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추진 현황은?

- '22년 정부 출범 시 스마트상점·공방 7만개, e커머스 활용 소상공인 10만명을 매년 양성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추진 중이며,
 - 유통환경의 비대면화, C-커머스의 국내시장 진출 등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온라인 활용 역량에 따른 맞춤형 온라인 진출을 지원중입니다.
- 아울러, “소상공인 누구나 디지털 전환이 손쉽게 가능하도록 민간과 협업하는 모델 구축”이라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 현장에서 답을 찾은 민간과의 협업모델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6월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Q2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 정부 지원사업 활용 방법은?

- 소상공인 온라인커머스 플랫폼 입점·상품개선 등 기초단계부터 홍보·마케팅 등 판로 확대까지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하며
 - * 상세내용은 “판판대로” 및 “가치샵시다” 누리집 참조 (사업안내, 공고문 및 신청)
-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매출분석 등) 도입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도 운영 중입니다.
 - * “소상공인스마트상점” 누리집 참조 (사업안내, 공고문 및 신청)
 - 특히,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무료로 제공하는 “소담스퀘어 (8개소)”를 권역별로 운영 중이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